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대학의 종단등록 규정과 포교고시 시 시행규정을 발표한 것은 포교사 자질문제에 일단락을 짓는 획기적인 조치란 평을 듣고 있다.

그동안은 3백4일 연수만으로 포교사증을 주어 '3백4일 포교사'란 비아냥까지 생길 정도로 자질문제가 심각했다. 심지어 접경이 사주쟁이들이 상술(?)로 이용하기 위해 포교사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 '도대체 포교사란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기존의 포교사에 대

시켜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신도에게 포교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신도지도자로 만든다는 계획. 점진적으로는 종단의 중추적 소임자와 사찰의 신도회 소임자는 포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포교사가 양적으로 확산되면 단계가 높은 (가칭)전법사 품계고시를 개설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한편 오랜 연륜을 지닌 일부 불교대학은 종단등록과 포교고시제도에 강한 의의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종단과

“서유럽에 부처님 신행바람”

영국 독일 화란등 불교신도·단체 늘어

영국 독일 등 서유럽일대에 불교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서유럽일대에서는 불교신자가 꾸준히 늘어 1백만에서 3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같은 불교신도수 확장에 맞게 1천여개의 불교단체도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단체들 가운데 잘 알려진 곳으로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유럽불교연합>과 세계 각지에 40개의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서양불교교리 연구회>로서 이 곳에서는 대충 2천여명의 불교신자나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도 대규모로 거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1885년 <탈리경전학회>의 탄생 이래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꾸준한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지난 78년 문을 연 <런던불교도 센터>에서는 이스트 엔드 지역에 2백여명이 모여사는 자치마을을 세워 불교관련 상점과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일어나는 불교바람에 대해 벤 머피 의장은 <서양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불교단체에 사람들이 몰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더 많은 교세확장을 위해서는 동양 불교교가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에 비해 독일과 프랑스는 신앙활동보다는 불교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에 치중되었다. 프랑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불교친우회>로 ‘불교사상’이라는 잡지를 통해 경전 번역 참선지도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독일의 경우도 1백여개의 단체 7만5천명의 불교신자가 보수적인 독일에 불교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960년 스페인까지



bn 활성화방안 찾는 이 호 관리국장

불교통신대 설립등 부대사업검토 “난국타개”

“다음달부터 시정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는 이국장은 부가사업추진으로 운영을 타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또 동국대 ‘21세기 사업기획단’과 검토중인 불교통신대학 설립을 조만간 확정지를 전망하며 국내교지의 모 전자회사와 ‘사찰안내’ 프로그램 소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깊숙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영상사업부를 활성화하고 부산시에도 올 하반기부터 제작능력을 갖춘 계획이다.

이호국장은 채널이 안정화 추세에 들면 별도의 종합불교 문화의 구상체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독자경영을 이루어 3년후 불자들에게 주식을 배당, 보람을 안겨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

조계종 포교사 고시 실시 의의

창구일원화로 질적향상 도모 희망자 인식전환·협조있어야

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불교(교양)대학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의해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과 주고, 재적사할 주지의 추천을 받고 시험을 통해 일정 정도 점수를 얻은 사람에 한해 포교사증을 교부하겠다는 포교원의 취지는 신심과 원력이 투철한 데다가 실력까지 갖춘 포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시키겠다는 종단적 의지의 표출이다.

포교원은 스님들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는 것처럼 신도들도 기초→기본→전문 3단계 교육을 정착

관계없이 스스로 발전 영역을 넓혀 각 대학 나름대로의 개성을 쌓아왔는데 종단관리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일단 포교원은 종단등록 이전 학제 2년 이상의 불교대학 졸업자는 그 자격을 인정하고 포교사 고시에 응시케 하고 있으며 학제 2년 이상의 종단 등록 불교대학 졸업자는 포교사 고시를 졸업논문 심사제로 대체케 하고 있다. 조계종뿐 아니라 여러 종단의 수 강생이 모여있는 유령 불교대학들이 조계종에 등록할 지는 미지수다. (속)

대구·청주 불방 재원조성 ‘가시화’

기금·인력·독립운영권 확보 노력

청주불교방송 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월성스님)는 지난날 30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현안이었던 독립운영권 문제 등을 본사 추진위 관계자들과 협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인터뷰 7면)

위원장 월성스님(법주사 주지) 원봉스님(前 태고종 종무원장) 범주스님(선학원 본원장) 채환관 집행위원장(영석학원 이사장) 등 8명의 위원과 본사 강한필사장, 종훈스님, 김종기 승병목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월성스님은 “단독법인을 구성하여 운영, 편성, 인사권을 청주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본사 추진위측은 불교방송의 운영형태와 지방국 허가조건이 1사법인 형태라는 원칙은 존중되되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실제적인 독립운영권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으로는 동화사 불국사 각 3억, 직지사 2억, 은해사 고운사 각 1억원의 자금을 각출하여 10억원을 마련하고 태고종 진각종 등 각 종단과 재가불자들이 1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총지종 기공불사
부산 정각사, 오는 19일

불교총지종 부산교구 정각사(주교 정정성)가 오는 19일 기공불사를 봉행한다.

종단 창종과 더불어 부산지역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정각사는 건평 9백여평의 대지에 지하층 지상 4층의 규모에 서원당, 자성학교, 강당, 주차장 등을 갖추고 교도들의 정법구현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진각종 락해 통리원장 취임식이 지난날 30일 봉행됐다.

“승속동행 대화합에 역점”

진각종 락해 통리원장 취임식이 지난날 30일 총인원 대강당에서 각 종단스님을 비롯 진각종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웅스님 불교방송국 강한필사장 등이 참석했다.

락해대정사는 취임사를 통해 “승속동행의 대화합을 바탕으로 교화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며 “이를위해 직제

개편 및 미래지향적인 종헌 중 법개정, 대사회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종단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승려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및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법계고시는 대선 종덕 대덕 종덕 종사 대중사승 총 2백명이 참석, 대선과 종덕은 필기 및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승려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및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법계고시는 대선 종덕 대덕 종덕 종사 대중사승 총 2백명이 참석, 대선과 종덕은 필기 및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리처드 기어 인도서 불교수행

미국의 주간 이그재미너지는 최근호에서 할리우드의 스타 리처드 기어(45)가 불교수행을 위해 곧 인도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아왔던 리처드 기어는 이를 위해 달라이 라마가 거쳐하고 있는 인도 북부 다탈살라에 집 한 채를 이미 구해 놓았다.

1년중 6개월 정도는 인도로 건너가 불교수행을 할 계획이

라는 기어는 당분간 속세와 탈속의 경계를 계속 넘나들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

이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영화촬영이 없을 때는 인도로 건너가겠다”면서 “미련 없이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평소 소에 존경하던 달라이 라마에게 신성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광주 BBS 광복절 특집 ‘소안도 아리랑’ 제작

불교광주방송은 광복 5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소안도 아리랑’을 제작한다.

3부작으로 제작될 이 프로그램은 남해안의 이름없는 섬 소안도가 1920년대 항일독립투쟁의 전구적 거점으로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한다.

담당PD 김형만씨는 “공식역사에서 빠져있는 안도군 소안도의 항일투쟁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선시기행’ ‘참나무’ 등 낭랑특집 편성

불교방송은 여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낭랑특집’ (월-토 오후 5시10분~6시, 일 오후 5시20분~6시)을 마련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선시기행 (월)’, ‘참나무’로 다스리는 여름 (화)’, ‘연화화의 여름나기(수)’

방송가 단신

‘이승훈 이삼미 납매’ 편을 보고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감동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금일 불을 기탁했다.

‘카루나’ 출연 옥소리 22일 봉은사에서 삭발

통일문제를 다룬 불교영화 ‘카루나’에 주연배우로 출연중인 옥소리가 오는 22일, 23일

서울 강남의 봉은사에서 삭발을 갖는다.

이번 삭발식은 GTV후원으로 ‘여성 아마추어 비디오 촬영대회’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카루나’는 9월 개봉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불교 촬영로케 등을 떠날 예정이다

이서 제작에 활기를 띄고 있다.

BBS 불국토의 아침
시인 강형철씨 진행

BBS 일부 진행자가 교체된 다.

‘불국토의 아침’은 지난 3월부터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강형철(42세)씨가 연거름교수에 이어 진행을 맡고 있다.

‘백발가요’를 이끌어 갈 가수 겸 DJ 이세훈씨는 불자가 사회 초대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SBS라디오 ‘트롯트 대행진’을 2년간 진행한바있는 베테랑.

또 ‘생방송 천수천안’은 안동 일 방송위원회의 해외 출장으로 지난 3월부터 오는16일까지 담담PD 황용관씨가 직접 진행하고자 화제.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제의 연원, 우란분제의 의미,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통속법회 식순	제2부 민음의 근본, 효:우란분제 1 우란분제의 연원 2 우란분제란 3 우란분제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1 나뭇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자욱오르간 목련존자 3 우란분제를 올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제를 베풀러 하신 절뜻은?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절원성군 전연과 부적

□ 200원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범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범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후 사상의 3대 경전 부모은중경 · 우란분경 · 목련경을 한데 모았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②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을 고취시켜드립니다.

부모은중경 · 목련경 ·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법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효사상이 고갈된 현대에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의 고취는 물론 법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부모은중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2부 우리말 부모은중경
제3부 목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4부 우리말 목련경
제5부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6부 우란분회란
제7부 우리말 우란분경	

□ 200원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범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범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정경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비닐커버
- 범보시 가격/4,0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정장소살신양행목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범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말 지정경

문경 성불암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온라인 번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